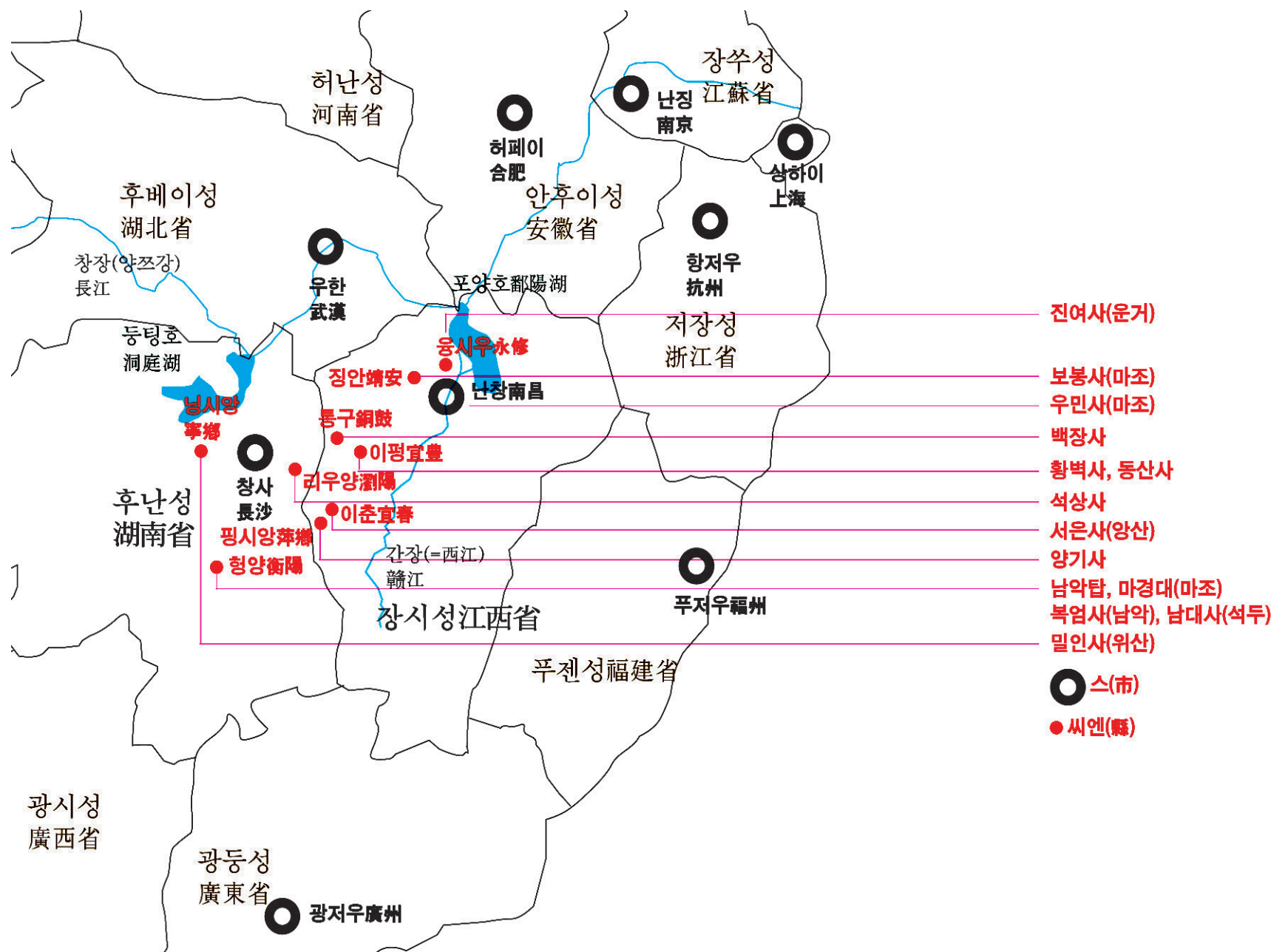


“영혼에 선의 향기가 묻어나는 향적의 시간이었다”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이 25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육조혜능에 이은 중국 선종 5가의 기운이 살아있는 13곳의 사찰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는 여행기 이전에 구도기였다. 정찬주 소설가는 작가 이전에 수행자의 마음으로 순례를 하고 글을 썼다. 그는 원고마감에 늦는 법이 없었고,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며 완벽을 추구했다. 지나친 수식이나 꾸밈보다는 독자와 벗거움을 나누듯 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인 글들은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 중간 중간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의 법문, 안국선원 수행자들의 수행담이 어우러져 재미를 더한 선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연재물은 6월 중 출판돼 불자들에게 수행 안내서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리=이상연 기자



1. 마경대(磨鏡臺)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는데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된다는 것인가?”
남약회양이 하루 종일 좌선만 하는 마조도일(709~788)을 깨닫게 하기 위해 거울을 만들겠다고 기왓장(벽돌)을 갈아 보인 곳이다. 중국 오악 중 하나인 남약 회양의 마경대 반석에는 조사선의 발원지라는 뜻으로 조원(祖源)이라는 글씨가 음각돼 있다. 마조의 문하는 통일신라로 들어와 구산선문 가운데 실상선문, 동리선문, 가지선문, 봉림선문, 성주선문, 사자선문, 사굴선문, 회양선문 등 여덟 문이 개장된다.

2. 복엄사(福嚴寺)

후난(湖南)성 형산(衡山) 복엄사는 남약회양(677~744)이 방장으로 주석한 곳으로 마경대에서 바라볼 수 있다. 복엄사는 육조혜능의 법을 남약회양으로 이어진 도량이다. 회양의 제자 마조에서 태동한 마조선(馬祖禪)이 백장에서 황벽으로 흘러 임제가 임제종을 이루고, 백장에서 위산으로 흘러가 양산이 위양종을 이루게 된다.

3. 남대사(南臺寺)



남약회양이 주석한 복엄사

복엄사에서 약 1km에 위치한 남대사에는 석두 희천(700~790)이 머물렀다. 복엄사에 주석하고 있던 회양과 남대사에 주석하고 있던 석두는 젊은 시자를 통해서 서로의 법을 드러내곤 했다. 남대사는 석두가 당나라 천보 초년(742)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주석하면서 법을 펴 행화도량이다. 중국 선종 5가 중에서 석두의 문하에서 조동종, 운문종, 범안종 3개 종파가 나왔다. 남대사 경내 동쪽에 큰 바위가 돌출돼 있는데 희천이 그 바위 머리에 작은 초암을 지어 오랫동안 주석한 까닭에 희천을 ‘석두’라고 부르게 된다. 실제로 남대사 동쪽 100여m쯤에 석두의 초암을 기리고 자 누각이 하나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붉은 범의를 입힌 석두희천 석상이 있다.

4. 밀인사(密印寺)

‘진리의 비가 형악으로부터 와서 양산에서 그 종풍이 열렸다(法雨來衡嶽 宗風啓仰山)’
밀인사는 위산영우(771~853)의 주석처로 위양종을 개산한 곳이다. 도술에 심취해 있던 당 무종이 일으킨 회창법난(542~845)으로 선종이 위기를 맞을 때에도 위산에서는 크게 융성해 선불교의 중심이 됐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밀인사를 존송했다. 당 헌



위산영우의 주석처인 밀인사

종과 선종, 송 선종과 휘종, 청 순치·옹정·건륭·도광 등의 황제가 칙서를 내렸고 근대에는 모택동 주석이 밀인사를 찾아와 밀인사 주지와 3일 밤낮을 토론해 ‘구국구민(救國救民)은大本대원(大本大源: 농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5. 석상사(石霜寺)

중국 후난성(湖南省) 류양(瀏陽)에 위치한 석상사는 청원 행사의 4세손인 석상경저(807~888)가 선을 전하고, 석상조원(987~1040)이 법을 설팬 도량이다. 석상사는 석상경저를 개산조사로, 석상조원을 중흥조사로 모시고 있다. 석상경저는 석상사에서 30년 주석하면서 석상칠거(石霜七去)를 가르쳤다. 사람들은 석상경저의 선을 고목선이라고 불렀는데 한 때는 대중이 1000여 명 중 800여 명의 대중이 고목처럼 앉아 눕지 않고 잠자붙어했다. 조원의 제자 황룡 해남(1002~1069)과 양기 방회(992~1049)가 황룡파(黃龍派)와 양기파(楊岐派)를 개창했다.

6. 서은사(棲隱寺)

양산혜적(807~883)의 행화도량인 서은사는 장수성 의춘(宜春)에서 30km 거리에 있다. 선종 오가(五家) 중 임제종, 조동종, 위양종이 의춘의 황벽사, 동



석두희천이 머물렀던 남대사

산, 양산에서 열매를 맺어 의춘을 선종의 성지라고 한다. ‘양산사’라고도 부르는데 산문 안에는 양산 스님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있다. 소석가(小釋迦)로 불리던 양산은 842년 개산해 기라성 같은 고승을 배출했다. 양산의 일원상 가풍(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일원상을 그리는 것)은 양산의 제자들에게 의해 신라까지 전해졌다. 경내 안쪽에는 양산선사 사리탑이 있다.

7. 백장사(百丈寺)

동고현(洞高顯)에 위치한 백장사에는 백장회해(749~814)가 주석했다. 지금은 땅바닥에 흩린 쌀 한 톨까지 줌은 백장의 검박한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 백장은 <선원청규>를 제정해 선사와 율사 도량이 구분돼 발전했고,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농선(農禪)의 보청정신이 확립돼 황실이나 귀족의 후원, 탁발에 의지하지 않고 대중이 스스로 논밭을 개간해 자립의 기반을 다졌다. ‘날리 청한다’는 보청(普請)은 율력처럼 누구나 예외없이 노동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당시 백장선의 요체가 됐다. 최근 복원한 백장사에서는 옛 절집 백장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조도일이 열명한 보봉사

8. 황벽사(黃檗寺)

의풍시 황경현 황벽사는 황벽희운(?~850 또는 855)이 입적할 때까지 교화를 펴 행화도량이다. 황벽촌 뒷산에 조성된 묘탑들로 봐서 명·청대 때만 해도 임제종 본가인 황벽사의 규모는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황벽의 제자 배후의 막후지원으로 사격(寺格)이 융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절이라기 보다는 허름하여 참고 건물에 가깝게 보인다.

황벽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아 있는 유적은 호포전이다. 호포전은 지금도 황벽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샘으로 황벽선사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현장이다. 황벽선사가 주지스님으로 와서 황벽사 대중들과 마을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불법으로 굴복시키고 석산(石山)의 강한 기운을 눌렀다는 전설이다.

9. 동산사(洞山寺)

조동종(曹洞宗)의 발상지 동산사는 개창조인 동산양개(807~869)가 가르침을 펴던 곳으로 현재 보리선사(菩提禪寺)로 불린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 같은 길지에 자리잡고 있다. 물에 비



대한불교조계종 종조인 도의국사가 서당지장에게 법을 받은 우민사

친 그림자를 보고 자성(自性)을 봤다는 개울물 위에는 누각형태의 다리 봉거교(蓬萊橋)가 세워져 있다. 개울가로 난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숲단지 형상의 분지가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리선사(菩提禪寺)가 보인다. 동산이 개장할 때는 광복사(廣福寺)였다가 북송 때 보리선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순례 일행에게는 조동조정 동산사가 더 자연스럽다. 산문 입구에 동산 선사가 심었다는 나한송(羅漢松) 한 그루가 눈길을 끈다.

10. 양기사(楊岐寺)

임제종 양기파의 개산조인 양기방회는 중국 선종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선종사를 석원한 특출한 선걸이다. 양기로부터 한국의 조계종이 이어져 왔다. 육조혜능 대사 이후 위양, 임제, 조동, 운문, 법안종 등 5개 선종 종파는 송대에 이르러 임제종과 조동종만 남게 된다. 임제종은 다시 석상초원 선사 문화에서 양기파와 황룡파로 나뉘며 이를 오가칠종(五家七宗)이라 부른다. 황룡파는 황룡 해남 선사로부터 허암회향 선사까지 200년 동안 이어지다가 소멸한다. 결국 양기파만 임제종의 법통을 이어 송·원·명·청대까지 가장 융성한 종파

가 된다.

11. 보봉사(寶峰寺)

마조도일이 열반한 보봉사.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는 마조는 35살 즈음 복간성 건양 불적령(佛跡嶺)에서 개당한다. 이후 강서상 남쪽 감주의 공공산에서 교화를 펼 후 남창의 개원사에 주석한 후 보봉사로 오게 된다. 보봉사에는 마조의 사리탑이 있다.

12. 진여사(眞如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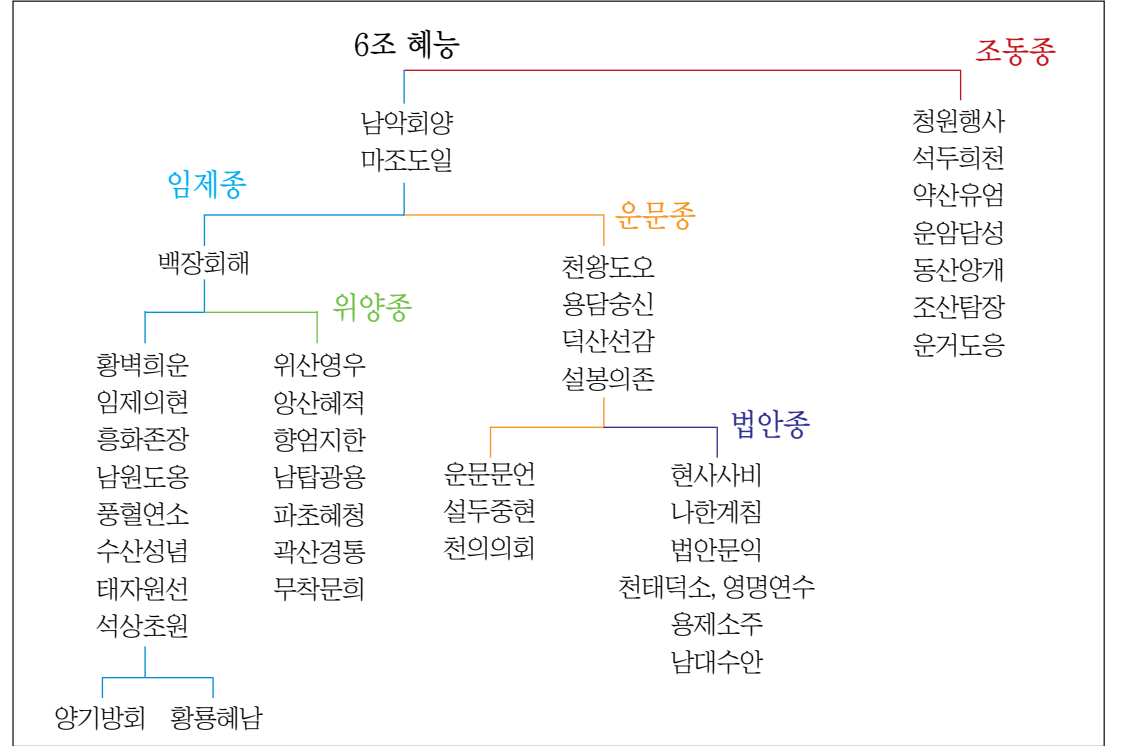
목조선 도량 진여사 풍경

마조의 원적도량인 보봉사에서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목조선 도량인 진여사가 있다. 진여사는 도용(道容)이 당 헌종 원하 3년(808)에 창건했다. 이후 동산양계의 제자 운거도응이 운거사를 찾아와 902년 입적할 때까지 30년 주지를 살면서 제2개산조가 됐다. 첫 이름이 운거사였다가 북송 때 진여선원으로 불리다가 문화혁명 이후 진여선사로 개명했다.

조주관(趙州關)이 진여사의 산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거도응이 조주를 이곳까지 배웅했다고 한다.

13. 우민사(佑民寺)

우민사는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인 도의 국사가 마조의 고족제자인 서당 지장 선사에게 법을 받은 절이다.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에는 도의 국사가 구법 입당해 제방을 참방하다가 이곳에서 서당지장을 만나 여래심인을 인가받아 육조의 종지를 한국에 최초로 전했다고 돼 있다. 마조 스님은 이곳에서 16~17년간 주석한다. 마조가 원적에 든 이후 서당 지장이 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찾아온 도의 국사가 서당지장에게 심인을 인가 받는다. 도의 국사가 귀국해 설악산 진전사에 은둔한다.



■ '정찬주의 행복한 '기행' 연재를 마치며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내 산방 뜰을 보니 해당화가 미소를 짓고 있다. 함박꽃은 주먹밥 같은 꽃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내 마음에도 물기가 돌고 꽃이 피어난다. 말 그대로 물이 흐르고 꽃피는 수류화개(水流花開)다.

작년 9월에 중국의 호남성과 강소성의 선종사찰을 1차로 돌면서 내내 맡았던 만리향(萬里香)이라 불리는 은목서 꽃향기가 잊히지 않는다. 올해 3월 2차 순례 때 보았던 대륙을 노랑게 물들인 유채꽃밭의 잔영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 향적(香積)이 된 것 같다. 문득 선종사찰 순례가 나의 영혼에 선의 향기를 묻히는 향적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몸에서 향기가 나는 부처가 향적여래(香積如來)다. 지금의 나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 궁금하다.

선종사찰 1, 2차 순례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과 선원의 재가불자들과 동행했다. 순례는 짙은 비구름 자락을 뚫고 마조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남악 형상의 마경대에서 출발하여, 복암사에서 회양 선사와 해사 선사를 참배하고, 남대사에서 석두 선사의 '초암가'를 듣는 순서로 시작했다. 위양종의 발상지인 밀인사에 가서는 자애로운

면모의 위산영우 선사의 기품을 보았고, 양산해적 선사의 행화도량인 서운사(양산사)에서는 위양종이 어떤 모습으로 융성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종의 황룡파와 양기파를 배출한 석상 초원 선사의 전법도량인 석상사에서는 선당에 들어 쬐으나마 옛 사당의 향로같이 참선을 했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농선쌍수(農禪雙修)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백장사에서 백장회해 선사의 법문이 서린 약호굴을 답사했고, <전심법요>의 법향이 신록처럼 푸르른 황벽사에서는 황벽촌 사람들이 마을잔치를 하듯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순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어 그들의 불심에 감동하여 콧잔등이 시큰했다.

뿐만 아니라 동산양계 선사가 조동종을 개창한 보리사(동산사), 임제종의 법통을 이어 천하에 법을 펼치게 했던 양기방회 선사의 주석처 보봉사(양기사), 마조 대사가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의 공안을 남기고 열반한 보봉사, 조동종을 천하에 퍼지게 한 운거도응 선사가 주석한 목조선도량 진여사(운거사), 2차 선종사찰 순례를 회향한 마조 대사의 행화도량이자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가 법을 받은 우민사 등을 참배했다.

순례 일행과 달리 나만의 참배가 있었다면 우리 선조인 구법승들을 찾아 마음으로 향을 사르는 일이었다. 복암사에서 회양 선사의 제자인 신라승 본여(本如)와 현성(玄晟)을, 해사 선사의 제자인 백제승 현광(玄光)을 그렸다. 밀인사 조당에서는 양산 선사의 제자인 신라승 순지(順支)의 위패를 찾았고, 백장사에서는 신라승 안(安) 선사와 초(超) 선사를, 보리사의 동산양계 선사 묘탑에서는 신라승 금장(金藏)을 진여사에서는 운거 도응의 제자인 신라승 이엄(利嚴)의 영혼을 만났던 것이다.

돌아켜 보니 몇 만 킬로미터가 넘는 대장정의 순례였다. 당송시대의 선승들 같으면 걸망을 메고 수십 년 혹은 한 평생 동안 걸어야 할 거리였지만 나와 순례 일행은 비행기와 자동차를 이용해 1, 2차 순례를 아쉬운 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마쳤다. 이 또한 21세기 과학시대가 준 행운이 아닌가 싶다. 수불 스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조사 선사들이 정진했던 절을 찾아 참배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선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공부를 게을

리 한다면 그 당시 공부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분보다 더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옛 조사와 선사들의 기운을 느끼고 선어록에서만 만났던 그분들의 기품을 공안의 현장에서 실감한 것도 순례의 발걸음을 뜻 깊게 했다. 선사(禪師)에 주석했던 옛 선지식을 참방하러 다닌 셈이었으므로 신심이 더욱 굳어졌던 것이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안국선원에서 공부하는 재가불자들과 순례를 하는 동안 발견한 사실인데, 부처님 시대와 마조대사와 방거사, 황벽선사와 배후 등 중국의 당송시대에 보여주었던 스승과 제자 관계의 역사성을 안국선원에서 복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스님과 신도라는 교단의 강고한 질서 안에서 믿음이 유지되는 틀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행복하게 간화선을 체험하며 전등(傳燈)의 관계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도도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조사 선사들이 남긴 공안의 현장에서 수불 스님이 펼치는 야단법석의 법문을 들으며, 고요한 눈빛과 선정의 미소를 머금은 안국선원 재가불자들을 도반 삼아 강호제현의 후손(後孫)인 듯 조사 선사들의 기운이 서린 선종사찰들을 순례했던 지나간 순간들이 소중한 인연의 꽃으로 내 기억의 창고 속에서 오랫동안 피고질 것 같다.



최근 복원한 백장사에는 백장회해의 겸박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